

동학농민혁명 스토리(웹툰, 웹소설) 공모전

응모분야	웹소설	접수번호	이 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작품제목	불꽃처럼 2화		
<p>2. 아는 듯 모르는 듯</p> <p>“아씨 죄송해요.”</p> <p>업동은 주명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조아렸다.</p> <p>“....”</p> <p>“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지 뭐예요. 이 추운 날 훌쩍데기 같은 옷을 입고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p> <p>“할 말 없다며? 계속 말하는 걸 보니 할 말 없는 게 아니네?”</p> <p>“앗!”</p> <p>주명의 말에 넙죽 엎드리던 업동이 머리를 바닥에 짚고 만다. 그 모습을 보고 정색을 하고 있던 주명은 큼 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았다.</p> <p>“업동아.”</p> <p>“네.”</p> <p>“샀던 책을 물려서 아이들에게 떡 사준 걸 뭐라 하려는 게 아니야.”</p> <p>“네?”</p> <p>“네가 내 말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란 것도 알고.”</p> <p>“무시라니오 아씨. 제가 어떻게.”</p> <p>“일단 저지르고 보자, 나중에 혼나더라도 지금 하고 보자 하는 그 버릇 고치라고 했잖니.”</p> <p>정곡을 찌르는 주명의 말에 업동은 정말로 할 말이 없어졌다. 몸종임에도 업동은 해야겠다고 결심한 말과 일은 저지르는 편이었다. 고부에서, 업동은 상대가 누구이든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반박을 했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하던 일도 멈추고 도와주는 성품 때문에 행랑어멈과 주명 어머니에게 호되게 혼이 나곤 했다.</p> <p>“친정에서 그렇게 여러 번 경을 치르고선. 여긴 내 시택 아니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p> <p>“네, 조심하겠습니다.”</p> <p>자신이 아씨를 난처하게 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미안했지만 업동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주명 역시 그런 업동의 마음을 알고 있을 것이었다.</p> <p>“알았으면 됐다. 나가 봐라”</p> <p>“네.”</p> <p>“참, 업동아.”</p> <p>“네?”</p> <p>“오라버니께서 오셨어.”</p> <p>“도련님께서요?”</p> <p>주학이 왔다는 말에 업동은 얼굴에 열이 확 퍼지는 듯 했지만 태연히 물었다. 웬일이신가 하는 표정으로. 주명도 업동의 얼굴에 스치는 감정을 애써 모른 척 했다.</p> <p>“사랑방에서 서방님과 말씀 중이시니 나중에 뵙게 되면 인사드리고.”</p> <p>나중에 뵙게 되면, 그 말은 못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집 안에 있으면서도.</p> <p>업동은 주명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에 가슴이 시린 것은 어쩔 수 없었다.</p> <p>**</p>			

김씨 댁 뒷마당의 커다란 느티나무는 오랜 세월을 버틴 위용을 뽐내며 서있었다. 그 자태가 감탄스러울 만도 한데 주학은 나무 따위 관심 밖이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고부로 돌아가고 싶었다. 과거에 필요한 돈을 빌리러 사돈댁까지 와서 입도 열지 못한 자신이 비참하고 한심했다.

차라리 과거를 포기했으면 했지 그냥 돌아가리라. 하지만 그러면 집 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부모님의 기대와 자신의 야망은 어찌란 말인가. 주학은 먼 산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면에서 부족한 것 없는 데도 출세에는 나 몰라라 하고 동학 나부랭이에 빠져 있는 인혁에게 아 니꼬운 생각이 들었다. 주학은 인혁과의 대화를 다시 떠올렸다.

“유학을 공부한 자네가 동학에 빠지다니 이해할 수가 없네.”

주학의 말에는 질책의 기운이 있었지만 인혁은 담대하게 받아쳤다.

“저는 그저 동학도 학문으로서 취한 겁니다. 공자께서도 각자 학문을 완성하고 수양을 통하면 군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타고난 신분 보다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 유학의 근본 아닙니까.”

“조선은 엄연히 반상의 서열이 존재하는 나라일세. 그런데 자네는 지금 양반 상놈의 지위가 같다는 동학무리의 말을 비호하는 건가?”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인간 본래는 다 존귀한 존재이니 자기 자신을 극진히 대하듯 다른 이를 그리 대하라는 것이지요. 글 읽는 유생도 소중한 백성이고 농사짓는 농민도 소중한 백성이니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나라의 근본을 어지럽게 만드는 결세. 병인년에 대거 처형된 서학 무리들도 사람이 다 똑같다며 혹세무민 했지. 그래서 조정에서 서학도 동학도 잡학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동학 교주 수운이란 자도 30년 전에 참수 당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라가 어지럽고 관료들이 부패하니 백성들이 서학이나 동학에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면 형님 같은 분은 벌써 등용되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혁의 말에 반박하기 어려운 주학은 동경대전을 가리키며 말했다.

“으흠. 아무튼 저런 책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전하께 불충하는 것이야.”

“저야 책을 좋아해서 읽은 것뿐이지만 왜 방방곡곡 동학도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형님께서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

“동학 책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라는 말이 있더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늘님 이니 사람 모시기를 하늘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조화가 정해지고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며 이런 가르침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 곧 세상만사를 알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말을 마치고 사람 좋게 웃는 인혁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주학에게는 뜬 구름 잡은 허황된 생각일 뿐이었다. 그리고 동학에 대한 인혁의 관심도 말과는 달리 학문으로서의 경계를 넘어서 듯 했다. 주학은 다시 한 번 인혁에게 경고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몸을 돌렸다.

그 때였다. 안채로 이어진 사립문이 열리며 업동이 마당으로 들어섰다. 순간, 주학은 심장이 멈춘 듯 했다. 여섯 달 만에 보는 업동이었다. 동생의 몸종, 집 안의 노비. 그러나 주학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소녀... 업동이 반가운 기색으로 웃음을 띠고 다가왔다. 그러나 주학은 마음과 달리 무표정했다.

“이 쪽으로 가셨다고 들었어요. 기체.. 강녕하셨습니다?”

“강녕이라... 글을 배웠다더니 건방져졌구나.”

매몰 찬 주학의 말에도 업동은 해사한 얼굴을 바꾸지 않았다.

“진지 준비되었으니 사랑으로 납시라합니다.”

주학은 업동을 외면하며 앞장서서 사립문을 향해 가다가 갑자기 발을 멈추었다. 아무 생각 없이 뒤 따라오던 업동은 하마터면 주학의 등에 부딪힐 뻔 했다. 돌아서지도 않은 채 주학은 여전히 냉랭하

게 말했다.

“여기가 좋은 게냐? 우리 집 보다?”

주학의 뒷모습을 보는 업동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좋습니다.”

“뭐가 좋더냐? 집이 커서? 음식이 풍족해서? 혼넬 사람이 없어서?”

“아니요.”

“그럼? 아 혹시 글을 배워서?”

“큰 집이나 맛난 음식 같은 거 없어도 좋습니다. 매일 혼나면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글이요? 사실 글은 고부에서도 읽을 수 있었습시다.”

“뭐라고?”

주학은 몸을 돌려 업동을 보았다. 업동도 주학을 똑바로 응시했다.

“하! 그 동안 사람들을 죄다 속였던 게로구나. 그래, 너라면 그럴 수 있지.”

“속인 건 아니고 말을 안 했을 뿐입니다.”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건 하나도 안 변했구나... 그럼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거냐?”

“과거에 급제하시면 출세 길이 열리실 거고 내로라하는 양반 댁 아씨와 혼사를 올리시겠지요.

그 모습을 안 보게 되어 좋습니다.”

업동의 말에 주학은 얼어붙었다.

“.....!”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님께도 도련님께도 저는 그저 몸종일 뿐일지 모르지만 저도 좋은 거 슬픈 거 느끼는 사람입니다.”

**

“서방님, 찾으셨습니까?”

“네, 들어오시오.”

주명은 인혁의 방으로 들어설 때마다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부부가 된 지 벌써 6개월이 넘었고 인혁은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왠지 가까워지지 않는 거리감이 있었다. 집 안끼리 정한 혼사에 주명의 마음이 내키지 않은 것은 당연했다. 얼굴도 모르는 남편과 평생을 살아야 하는 숙명이 서글픈 것은 사실이었다. 아마 인혁도 숙부가 나서서 이뤄진 혼사에 같은 심정이었으리라. 주명은 책에서 보았던, 연인사이 남녀가 갖는 감정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포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주단자를 직접 가지고 온 인혁을 처음 보았던 날, 주명은 난생 처음 가슴 속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느낌을 받았다. 인혁은 따뜻한 눈빛과 환한 웃음을 갖고 있었다. 이 사람이 남편 될 사람이라니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리고 혼인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러나 그 마음은 자기 혼자만의 것 같았다. 인혁은 따뜻하게 격식을 차렸다. 예의와 배려일 뿐 애뜻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형님 주무실 자리는 잘 챙겨드렸소?”

“네.”

“대접이 부족하진 않았는지 모르겠소.”

역시나 그는 다정했다. 거리감을 품은 다정함. 인혁을 볼 때마다 그 점이 주명을 서운하게 만들었다.

“아니어요. 오라버니께서 고맙다 전하라 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실 성격은 아니시라..”

“하하하, 알고 있소. 형님 성품이 어떻다는 건.”

호탕하게 웃는 인혁을 보니 또 설레었지만 오늘 주명은 오라버니의 얘기가 맘에 걸렸다.

“지아버가 댄 데 정신 안 팔리게 내조 잘 하거라.”

“이거 받으시오.”

인혁이 주명에게 비단보에 싸인 뭔가를 건넸다. 묵직한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주명은 금방 알아챘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빈손으로 보내드리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소. 과거가 석 달 남았으니 준비도 하셔야 하고요.”

“서방님...”

어려운 친정이 혹시 시택에 부담이 될까봐 걱정하던 주명은 몽클했다.

“내가 드리면 혹시 언짢으실지 몰라 말ियो.”

“제가 드려도 안 받으실지 몰라요.”

“내가 보기엔 형님께서 유일하게 다정하게 대하는 사람이 부인인 것 같던데요?”

“아무리 그래도 오라버니 자존심이 워낙 강하셔서...”

인혁은 수궁하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명을 향해 장난스럽게 웃는다.

“우리 집 가풍이라고 하세요. 아까 보니 아버님 뜻이라고 하면 통하던데요.”

인혁의 말에 주명이 활짝 웃음을 터뜨리자 두 사람 사이에 모처럼 따뜻한 기운이 흘렀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 가지 않았다. 곧 인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고부 상황이 안 좋아질 거 같아 걱정이요. 부인께서도 마음 쓰이시지요?”

“네, 대문 안 아낙이라 해도 들리는 건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 형님께서 과거 때문에 집을 떠나시니 마음이 복잡하실 거요.”

“그렇긴 해도 부모님께서도 이번 과거에 무척 기대가 크시니까요.”

“과거장에서 상처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말ियो.”

인혁은 시험장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알 텐데도 굳이 시험을 보려는 주학이 안쓰러웠다.

“네? 무슨 상처요?”

“아, 아니요. 혹시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까 해서요, 하하하”

돈이 오가고 연줄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을 알면 주명이 놀랄까 인혁은 말을 돌렸다.

“그런데 형님께서도 업동이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오?”

“네?”

왜 갑자기 업동이 얘기를? 주명은 의아했다. 집 안의 하인들에게 항상 너그러운 인혁이지만 아내의 몸종에게 관심을 가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업동이 얘기에 좀 엄해지셔서 말ियो.”

혹시라도 인혁이 업동에 대한 주학의 감정을 알게 된 게 아닐까, 주명은 걱정되었다. 자신도 모른 척 할 뿐 묻기조차 못한 오라비의 마음을.

“그런 게 아니라..”

“내 보기엔 꽤 팬찮은 아이인데 말입니다.”

찌르르한 통증 같은 것이 가슴을 훑고 지나갔다. 왜일까? 인혁에게서 다른 여자의 칭찬을 처음 들어 서인가, 아니면...

“장인 장모님께서도 그 아이를 부인과 함께 여기 보내실 정도면 여간 믿으신 게 아니요?”

“네, 업동인 어릴 적부터 저와 같이 자라다시피 했으니까요.”

주명의 머리에 업동과 웃으며 놀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그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원래 업동인 저희 집 노비가 아니었어요. 업동이 부모가 서학을 하다가 관아에 끌려가 죽었습니다.”

“아, 그런.”

“갓난아기였던 업동이란 살아서 친척집에 맡겨졌는데 일곱 살 때 그 사람들이 저희 친정에 팔았답니다.”

“팔아요?”

인혁의 눈이 커졌다. 주명은 인혁의 반응에 웬지 모르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사람을 사고 판다는 것이, 노비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당연한 나라임에도 주명은 자신이 잘못된 듯한 마음이 들었다.

“네,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지만 행랑어멈한테 그리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서방님께서도 업동에게 왜 그리 관심이 있으신가요?’

주명은 금방이라도 이 말을 내뱉을 것 같아 입술을 깨물었다.“

“서방님.”

“왜 그러시오?”

주명이 무언가를 물어보려 입을 열려는 순간, 문밖이 소란스러워졌다.

“서방님! 서방님! 큰 일 났습니다.”

행랑아범이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마당에 모여 웅성거리는 하인들이 보이고, 행랑아범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땃돌아래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인가?”

“고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뭣이?”

놀란 인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명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민란이랍니다. 동학군이 고부관아로 쳐들어갔답니다!”